

한국노총전남본부가 주최하고 전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후원하는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추진사업 우수기업 탐방'은 보다 나은 고용환경을 만들고 그 토대위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기업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고용환경개선에 기여함을 인식하도록 집중 홍보 및 캠페인 활동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산업평화를 이룩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노사 상호 존중과 배려,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비정규직,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전개로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을 위해 전남지역 노사민정 참여와 협력한 사례를 집중 부각함으로써 건전한 노사문화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믿는다.

기업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제공은 궁극적으로 업무효율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모든 사업장이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같은 사업을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찾아간다. <편집자 주>

# 옛 명성 복원 꿈꾸는 명실상부한 제과사 만형이자 리더

## 해태제과 광주공장

주 52시간 정부시책 노사 적극 참여 일·가정 양립 지원  
고객감동 구현해 내기 위해 전 종사원이 총력을 경주

1945년 창립 이래 국민과 더불어 우애를 다지며 성장해 온지 70여년. 이를 넘어서 100년을 향해 이제 크라운제과와 발을 맞추어 재도약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해태제과.

고객을 중심으로 섬기지 못하는 기업은 아무리 뛰어난 인력과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고객의 외면을 당한다는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오늘도 양질의 제품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객의 마음은 금(金)과 같이 섬세하고 정확해서 0.01분만 무거워도 무거운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다는 사실은 수 많은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해오며

터득한 진리이다.

이를 교훈 삼아서 먼저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환경보호와 사회적 공익을 화사함을 적극 추진하는 등 기업이 익의 사회환원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는 해태가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경영의 혁신과 더불어 확고한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이루면서 초우량 기업으로 우뚝 설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고객만족을 모든 업무

의 판단기준으로 하고 경영의 프로세스를 고객과 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고객감동을 구현해 내기 위해 전 종사원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직원들이 직접 만든 AQ작품을 공장 전역에 전시하고 사무실은 그림과 조각작품으로 미술관을 연상케 하여 쉼터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광주지방 고용노동청과 연계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하여 공생협력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고용노동행정 유공표창으로 '일자리창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릴레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종사자들의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매일 안전구호를 시작으로 공정의 기계가 가동되며 산업 안전보건권의 날, 안전보건강조주간, 노사합동 특별안전보건 점검, 안전보



건 신문 발행 등 다양한 경로로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또한, 보건관리자의 현장 순회 점검을 통해 수시 건강체크 및 자가 건강체크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2012년 시범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하여 현재까지 활동 중에 있으며, 2014년 A등급 2015년 A등급을 인증 받으며 협력업체와의 상생의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산업재해예방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에 앞서 4월에는 한

근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한 직장 만들기 운동(무재해 807일)-무재해 3배수 인증을 받았다.

고객 감동을 위한 직원들의 재능 기부 등도 타 회사에서는 볼 수 없는 해태만의 기획으로 대형 마트 앞에 대형 눈조각을 전시함으로써 고객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 '찾아가는 눈조각전'이 그 중의 하나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해태제과 광주공장 국악한마당은 광주공장 주차장 공간에 공연장을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직원가족을 초청 국악공연이 진행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핵심 행사의 하

나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해태가 날로 사세를 확대해갈 수 있는 것은 노사가 하나돼 지역발전과 회사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기에 가능했다. 노조의 가려운 곳을 먼저 알고 긁어주는 사측의 배려와, 회사의 요구가 있기 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조의 통큰 협력이 유난히 돋보이는 해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충실한 회사로 변신을 꾀하며 명실상부한 제과사의 만형이자 리더로서의 소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오늘도 전 종사원이 밤낮없이 뛰고 있다.

최남규 기자



### “일·가정 양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것”

#### 이상진 공장장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고용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와 라인투자로 매년 일지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으며 신입사원 정규직 채용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주52시간 정부시책에 노사가 적극 참여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사무실 근로자는 컴퓨터 온오프제 도입을 통해 저녁이 있는 삶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회사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집에 돌아가기 까지 안전한 공간에서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할관리와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제일의 광주공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노사의 관계는 원만하다고 생각하나?

-1984년 광주공장 준공 이래 30년간 무분규로 노사 화합을 이끌어 내었으며, 다시뛰는 광주공장을 모토로 전사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공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활동에 매진하였다. 그 결과 노사를 떠나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공장의 발전과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이끌어 냈다. 또한, 모든 행사는 노사가 함께하며 사측의 전폭적 지원, 노조의 상생적 협조로 소통하는 광주공장 노사문화를 구축하였다.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은?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 사고를 예방 할 수 있기에 프로세스 준수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장을 만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고객에게 돌려드린다는 취지에서 고객과 함께하는 CSV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당부 또는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

-상생의 노사관계 및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

▶회사가 지역발전 또는 지역민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해태제과는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고객에 돌려드리자는 모토로 다양한 CSV 활동을 하고 있다. 크라운해태 그룹차원에서 창신제, 이리랑페스티벌, 눈꽃축제, 영재국악회, 허니데이 사랑한마당, 한 여름밤의 눈조각전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호남권에서는 허니데이 사랑한마당, 광주공장 국악한마당, 찾아가는 눈조각전 등을 통해 지역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드리고 있다.

###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회사 만드는데 일조할 것”

#### 강길원 노조위원장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 상호 믿음과 신뢰가 초석이 되어 노사상생이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해마다 연초 노사가 한마음 한뜻을 모으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하계 및 동계 수련회 개최시 노사가 공동참여하여 발전적인 견해와 의견을 나누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의 장을 통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더욱 더 발전될 것으로 믿는다.

▶노조를 이끄는 데 있어 소신이나 원칙이 있다면?

-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사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고,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비해야 하는 중용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전체의 의견을 따르나 절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안정적인 노동조합을 위해 소신과 원칙 그리고 소통을 통한 어려움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합원 단합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은?

- 대부분 노동조합에서 실시하는 이유회와 체육대회를 통해 단합을 이루고 있고 더불어 자율참여에 의한 사회 봉사 활동을 강화하여 나눔을 통한 자기 발전과 나눔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합원간의 단합을 이끌고 있다. 시각장애인 동반 등반대회는 대부분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시각장애인 1대 1을 통해 편견을 버리고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배려의 정도는?

- 노사 상생이 조합원의 행복과 회사의 발전이라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노사 간담회 및 정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과 조합원의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개선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합원의 애사심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나?

- 애사심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진심이 담겨야 한다고 본다. 회사는 물론 노동조합에서도 조합원이 진정으로 회사를 위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회 기부활동의 일환으로 사내 불우한 조합원을 위해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조합원의 회사에 대한 애사심은 그 어느 회사보다 높다고 하겠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소개한다면?

- 어느덧 노동조합이 30년이 되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부족한 부분과 아쉬운 일을 거울삼아 다시 뛰어가는 30년이 되도록 하겠다. 특히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두가 사랑하는 기업을 만들수 있도록 저희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

최남규 기자